

하나됨과 나눔

“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

< 마태복음 6장 33절 >

- 오늘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대강절 연속기도회 표(자연예배당)에 미리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 연령별사랑방 전체교사회회가 오후1시30분 아브라함 장막에서 있습니다.
- 성서일기 범위가 이번 주 토요일에 스가랴서로 바뀝니다.

연말 연초 일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12월)

11일(수)~17일(화) 멧쟁이 학부모면담

12일(목) 오후 7시 어린이학교 종강 및 발표회 /

16일(월)~24일(화) 대강절 연속기도회 / 18일(수) 꾸러기학교 종강 /

24일(화) 오후 7시 성탄전야예배 / 25일(수) 오전 11시 성탄축하예배(성찬식)

25일(수) 오후 3시 공동체 중무식 / 31일(화) 오후 11시 30분 송구영신예배

(2025년 1월)

2일(목) 오후 12시 공동체 시무식 / 8일(수)~10일(금) 기대연컨퍼런스

13일(월)~23일(목) 어린이학교 졸업여행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영동 · 전경희 집사 가정 (감사)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 (감사)

강단을 꽃으로 : 김예지 청년 · 김이레 집사 (감사)

신협(현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1 - 49 호

2024년 12월 8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

하루 동안 해의 모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의 얼굴이 있다면 아마 저녁 하늘을 발갛게 물들이는 노을일 것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 보면 노을은 '해가 자기를 잊지 말아 달라는 표시로 산들에게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빛을 비춰주는 거'라고 합니다.

한 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빛을 뽐어내는 달이 있다면 단연코 12월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이 있기도 하고, 한 해 동안에 자신에게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전할 수 있는 빛나는 달이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대강절.. 기다림... 생각 만해도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단어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도 너무나 가슴 설레게 하는 일인데 우리 삶의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대와 떨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이라는 주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오랜 세월 기다렸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물론,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세주를 대를 이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잘 알려진 기다림들이 있지만 저에게 있어 기다림에 대해 절실히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이야기는 방탕하여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 먼 지방으로 가 그 모든 것을 탕진하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돈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어 돼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둘째 아들은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

이 생각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본문 초반에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며 그 참담한 처지가 그려지고 후반에는 아버지와 형을 만나면서 탕자의 비유는 맺음을 합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이지만 아들을 잃고 끊임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더욱 마음이 갑니다.

본문에 보면 아들이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눅15:20) 라고 나옵니다.

얼마나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으면 먼 곳에 있어도 단번에 알아보고 달려갔을까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더럽고 처참한 아들의 몸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간절한 기다림의 끝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아마도 매일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있는 길 저 끝을 바라보며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버지니까요.

대강절, 기다림을 생각하면 항상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대강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여 죄에 노예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기다림보다 고귀한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따뜻한 포옹과 입맞춤을 누리는 시간이 이번 대강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 말씀

“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
< 말라기 3장 1절 말씀 >

< 수요기도회 >

인도 : 정태일 목사

찬송 : 263, 370 / 510

기도 : 김영화 권사

성경 : 에스겔 39장

제목 : 그 때에야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1. 그 때에야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What)
 - 1b-5절 하나님께서 곡에게 대적하겠다.(심판)
 - 6-8절 그 때에야 백성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 21-24절 그 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도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 25-29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을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용의 중심: 그 때에야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Why)
 - 1)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이스라엘 심판과 이방인 심판)
 - 2)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신다.(이스라엘도 범죄하면 심판하신다)
 - 3)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신다.(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3.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How)
 - 1)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십시오.(고백=삶에 적용)
 - 2) 구원 받은 사람도 심판을 받지 않도록 범죄하지 마십시오.
 - 3) 범죄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제2의 고향 무림리의 사랑방 이야기

직장이 있는 평택과 무림리 본가를 오가기를 6년째, 그 사이 남편, 아들 그리고 저는 각각 자기만의 방법으로 적응하면서 서로의 빈 자리를 채워 가며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본능적으로 남편과 아들이 기다리는 나의 가정, 보금자리가 있는 무림리로 무조건 옵니다. 아마 저는 귀소본능이 강한 사람인 거 같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기차, 버스, 자가용 모든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무림리 집으로 옵니다...

네 살이었던 범준이 손을 잡고 사랑방공동체학교를 처음 오고, 그 다음 교회 주일예배에 나오고, 무림리로 이사를 하고, 저희 집은 이렇듯 제 삶의 영역을 넓혀가며 저희 가정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 후 무림리는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된 거지요. 그리고 사랑방교회를 다니면서 방모임을 하고, 여러 지체분들과 함께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네요. 감사하게도 방모임을 통한 성서모임·친교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사랑방공동체 지체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교회생활을 잘 해 왔단 생각이 듭니다. 사랑방의 울타리가 없었더라면 저와 우리 가정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매주 하는 방모임, 함께하는 교회봉사 못할 때도 많고... 그럼에도 사랑방 식구들은 어딘가 아픈지, 근황이 어떤지 따뜻한 안부를 언제나 물어 오십니다.

아~ 이런 곳 이런 분들이 없지요. 이런 소소한 친절함이 객지 생활을 하다 보니 얼마나 고맙고 애뜻한지 모릅니다. 그뿐인가요 타지에서 혼자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바로 달려와 옆을 지켜준 고마운 동생도 있고요, 함께 무림리 돌레길 산을 걸으며 이런저런 맘 상한 일, 기쁜 일 서로 나누며 위로하고, 같이 기뻐해주는 산행 벗 언니들도 있고요, 소소히 텃밭에서 거둔 채소, 건강한 먹거리까지 서로 서로 나눕니다. 사랑방모임에선 맘과 정성을 다해 서로서로를 대접합니다. 지난 가을날 무림리 주변 집사님 댁에서의 방모임은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는 하루, 힐링되는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섭을 어디에서 그것도 아주 유연하고 편하게, 자유롭게 말하고 누릴 수 있을까요! 각자 다른 인생의 여정이지만 사랑방공동체 식구들은 서로의 자리를 굳건히 잘 지켜내며, 예배드리고, 따뜻한 눈빛을 주고 받고, 손을 마주 잡고 인사를 나누고, 같이 밥상을 마주하며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방공동체가 자리하고 있는 무림리는 저에게 내 가정과 더불어 귀소본능을 이끄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다가오는 겨울, 울 사랑방 지체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행하시길. 따뜻한사랑방 장미라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들은 12월 18일까지 학교에 오고 겨울방학을 합니다. 그 짧은 12월이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센싱더스토리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보고 들었습니다. 교구를 직접 만지며 이야기를 되새겨보았습니다. 교구들은 자연예배당 한 쪽에서 반짝거리며 성탄을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큰 눈에 부러진 소나무를 주워왔습니다. 지금 그 나무엔 꾸러기들이 알록달록하게 변신시킨 솔방울이 달려있습니다. 천사인형도 넷 걸려있습니다. 꾸러기 미술 선생님이신 최명지 선생님께서 꾸러기들 얼굴을 그려주셨고 꾸러기들은 색종이로 날개를 오려서 천사 인형을 만들어 그 나무에 걸었습니다. 하온이가 감기에 걸려 꾸러기에 오지 못해서 하온이 천사는 아직 걸지 못했습니다.

의정부문화재단에서 남남이들의 겨울대탐험이라는 공연을 보았습니다. 악기로 겨울 느낌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설명도 듣고 호두까지 인형 그림책도 짧게 읽고 음악의 내용을 표현한 무대배경도 보았습니다. 한 곡 한 곡 잘 느끼고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날씨 탓인지 기침도 하고 콧물도 나는 꾸러기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교사 : 정승희 >

어린이학교

기온이 낮아도 기온이 올라도 아이들은 바깥이 좋은가 봅니다. 실내에 히터를 켜 놓았다고 해도 아이들은 바깥에서 도란도란 소꿉놀이도 하며 추운 줄 모르고 놀입니다. 게르의 굴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걸 보면 그 속에서도 아이들이 겨울을 즐기고 있는듯 합니다.

화요일엔 수업을 마치고 맛난 저녁을 함께 먹고, 포천 반월 아트홀 대극장에서 국제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한빛예술단이 선보이는 명작영화 OST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9명의 시각장애인들의 타악양상

배움과 가르침

블의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한빛 예술단 모든 단원들의 오케스트라 앙콜곡 캐롤까지, 모든 연주는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연 중 우리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함께 눈물로 웃음으로 미소 가득한 모습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연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주 12월 12일 목요일 늦은 7시에 '어린이 책방' 이라는 제목으로 학년말 발표회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배우고 익히고 느끼고 즐기던 것들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요즘 교실마다 옹기종기 열심히 모여 의논하느라 아주 바쁜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픈 분들도 많고 감기로 결석하거나 지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을 생활해 보아요~^^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꿈을 꾸었던 것 같았던 종강발표회 이후, 월요일 저녁에 멋쟁이는 다시 모였습니다. 진정한 종강은 종강여행을 마쳐야 찾아오기 때문이지요. 이번 목적지는 통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버스를 타고 도착한 그곳은 평화롭고 또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멋쟁이 도착하자마자 바닷가를 자전거로 달리며 보랏빛 노을을 만끽했습니다. 레크레이션과 간식을 먹고 난 다음 날에는 오전엔 임진왜란의 역사가 담겨 있는 앞바다를 요트로 즐기고, 오후에는 큰 축구장 안에서 숨이 턱 밀까지 차도록 신나게 달렸습니다. 공동체훈련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나누는 과정까지, 멋쟁이들은 피곤을 잊고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동피랑벽화마을과 거북선 모형을 비롯하여 통영의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학년별로 모여 대화하고 정리한 이후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피드백도 6학년은 마지막이어서 그런지 사뭇 그윽한 분위기였고, 몇몇은 눈물짓기도 했습니다. 많은 멋쟁이들이 멋쟁이,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멋쟁이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으로 이흥인, 부회장으로 진나우가 선출되었습니다. 다음 학기가 많이 기다려집니다.

< 교사 : 이어진 >

공평의 하나님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면 말씀 중에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아 그렇구나'하고 넘긴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중 하나는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7절에 보면 "그런데도 네 민족 모두가 '주님께서서는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공평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하는 일이다."라고 나옵니다. 공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됐었습니다. 자라나는 환경, 학벌, 배경, 가족, 나라, 외모, 경제력 등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다르고, 그것들을 통한 불합리함, 열등감 등 사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문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성경에 있으니 이해는 되지 않지만 말씀이니 받아들이려고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이 공평하지 않다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세상을 바라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에 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나도 저 만큼은 갖고 싶다' 또는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비교와 욕심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 공평하신가? 다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1번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뿐인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은 세상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신가는 주위를 둘러보면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나 각자 다른 환경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뜨거운 하나님 사랑으로 추운 겨울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어람 집사

< 수요 정오기도회 >

인도 : 정다운 전도사
찬송 : 105장, 412장
성경 : 요한복음 14장 25-27절
말씀 :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각 나라가 각자의 국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도록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한국 사회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바른 소리를 내고 바른 모습을 보여야하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힘말리는 모습입니다. 한국 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
 - 1) 회복중에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등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
 - 2) 여행 중에 있는 멧쟁이학교를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대강절 첫주를 보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밭에 작물들을 모두 거두어 들고 주변에 나무들을 정리하여 땀감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따뜻했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주변 문단속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프신 분들의 소식에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각 처에 흩어져 있어도 마음을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장영미 전도사>